

In depth

A look at current financial reporting issues

inform.pwc.com

pwc

SAMIL | 삼일회계법인

August 2014

INT2014-06

At a glance	1
Background	1
Overview of the model	2
The model in detail	4
Transition	15
Implementation challenges	16
Appendix – Illustrative examples	17

IFRS 9: 기대신용손실

At a glance

IASB 는 2014 년 7 월 24 일 IAS 39 지침의 대부분을 대체하는 IFRS 9, '금융상품'의 완성된 기준서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특정 채무상품에 대한 FVOCI 범주를 신설하는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개정 지침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는 손실을 보다 조기에 인식하게 되는 새로운 손상모형이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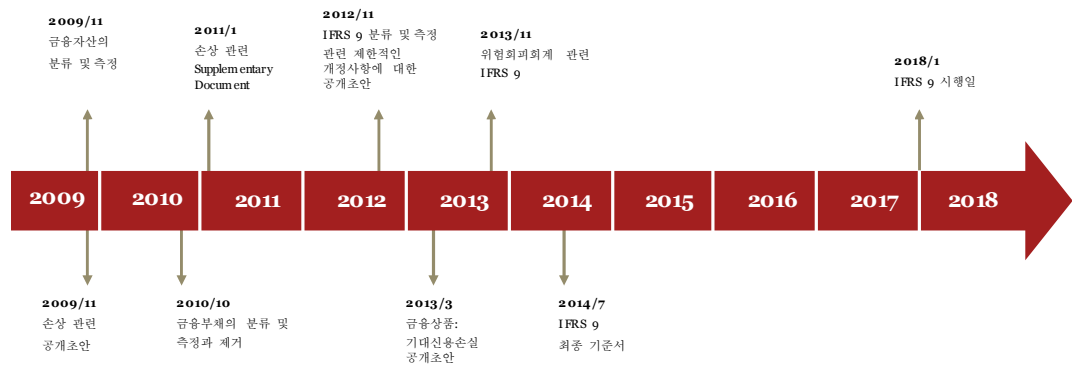
한편, 금융부채의 분류 및 측정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된 금융상품의 자기신용위험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것 이외에는 변동사항이 없다. 그리고 여기에는 2013 년 11 월에 발행된 새로운 위험회피 관련 지침도 포함된다. 이러한 변동사항은 상당한 양의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기업과 특히 금융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IFRS 9 은 각국의 도입절차를 전제로 2018 년 1 월 1 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될 것이다.

동 문서는 새로운 손상모형을 다루고 있다.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과 관련된 변동사항은 In Depth "IFRS 9: 금융상품의 분류 및 측정"에서 다루고 있다. 일반 위험회피 모형은 "General hedge accounting Practical guide"에서 다루고 있다..

Background

G20 는 금융위기 중 각국 회계기준제정기구에게 높은 질의 단일의 국제 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IASB 와 FASB 는 새로운 금융상품 기준서를 개발하기 위해 공동 작업을 시작하였다. IASB 는 IAS 39 를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기로 하고 분류 및 측정, 손상, 위험회피의 세 단계로 세분하였다. 매크로 위험회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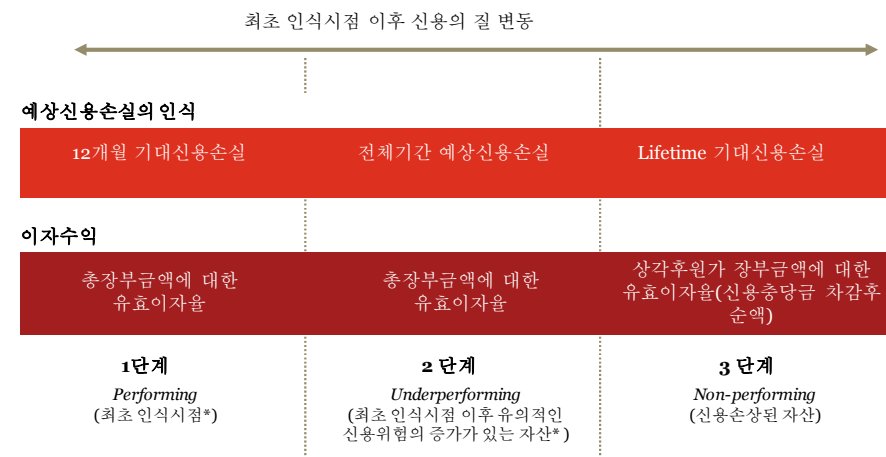
Timeline – IFRS 9



프로젝트 초반에는 분류 및 측정과 손상 양쪽에 대해 IASB 와 FASB 가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손상의 인식에 대한 3 단계 접근법에 대한 지지가 부족함에 따라 FASB 는 단일의 측정 모형을 개발하였고 IASB 는 3 단계 모형의 개발을 계속 진행하였다. 또한 FASB 는 IASB 와 합치되는 분류 및 측정 기준의 개발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IFRS 9 은 합치된 기준은 아니다.

Overview of the model

위에서 언급된 바와 이, 새로운 기준은 최초 인식 이후의 신용의 질의 변동에 근거한 3 단계 손상 모형으로 요약된다:



(*)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있음 (아래 '일반 모형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 손상된 자산' 참조).

1 단계에는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는 금융상품 또는 보고일 현재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12 개월 기대신용손실(ECL)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해당 자산의 총장부금액(신용충당금 차감 전 금액)에 대해 계산된다. 12 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일 이후 12 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상사건으로부터 예상되는 손실이다. 이는 해당 12 개월 동안의 현금 부족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자산으로부터의 전체 신용손실을 향후 12 개월 동안에 손실이 발생할 확률에 따라 가중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2 단계에는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는 있는 금융상품(보고일에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 경우 제외)이면서 손상의 객관적 증거는 없는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인식되면서 이자수익은 여전히 해당 자산의 총장부금액에 대해 계산된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상품의 예상만기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상사건의 결과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이다. 기대신용손실은 PD 를 가중치로 하는 가중평균신용손실이다.

3 단계에는 보고일에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금융자산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인식되면서 이자수익이 순장부금액(즉, 신용충당금 차감 순액)에 대해 계산된다.

기준에서는 경영진이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판단할 때 해당 금융상품의 보고일의 채무불이행 위험과 최초 인식시점의 채무불이행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근거가 될 수 있는 가능한 정보를 고려하도록 요구한다.

PwC observation

기대신용손실 모형은 신용위험의 상대적 평가에 의존한다. 이는 동일한 조건의 대여금이 각 기업이 대한 대여금을 최초 인식한 시점의 신용위험에 따라 어떤 기업은 1 단계에, 다른 기업은 2 단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한 기업의 동일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두 건 이상의 대여금이 각 대여금의 대여시점의 신용위험에 따라 각각 다른 단계에 포함될 수도 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정의는 내부적인 금융상품 신용위험관리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와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질적 요소(예: 재무약정 등)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채무불이행은 기업이 더 긴 기간의 채무불이행 기준이 적절하다는 것을 입증할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자산이 90 일 연체된 때보다 늦지는 않다는 반증가능한 전제가 적용된다.

PwC observation

‘90 일 연체’ 관련 반증가능한 전제는 다른 추가적인 정보가 입수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다. 이러한 전제의 목적은 금융자산의 채무불이행 사건을 90 일 연체일까지 미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정보 없이 채무불이행을 해당 시점 이후로까지 미루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PwC observation

새로운 기준서는 특정 산업을 적용범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이다. 비금융기관은 practical expedient 의 적용을 받아 적용시의 업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러한 practical expedient 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은 동 기준서의 적용효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으로 회계정책 뿐 아니라 신용관리시스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IASB에서는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implementation group* 을 조직하고 있다.

The model in detail

적용범위

새로운 모형은 다음을 적용범위로 한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FVOCI)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
-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FVTPL)하지 않는 모든 대출약정;
- IFRS 9 이 적용되면서 FVTLP 로 회계처리되지 않는 금융보증계약; 그리고
- IAS 17, 리스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채권과 IFRS 15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 또는계약자산 중 대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가 있는 경우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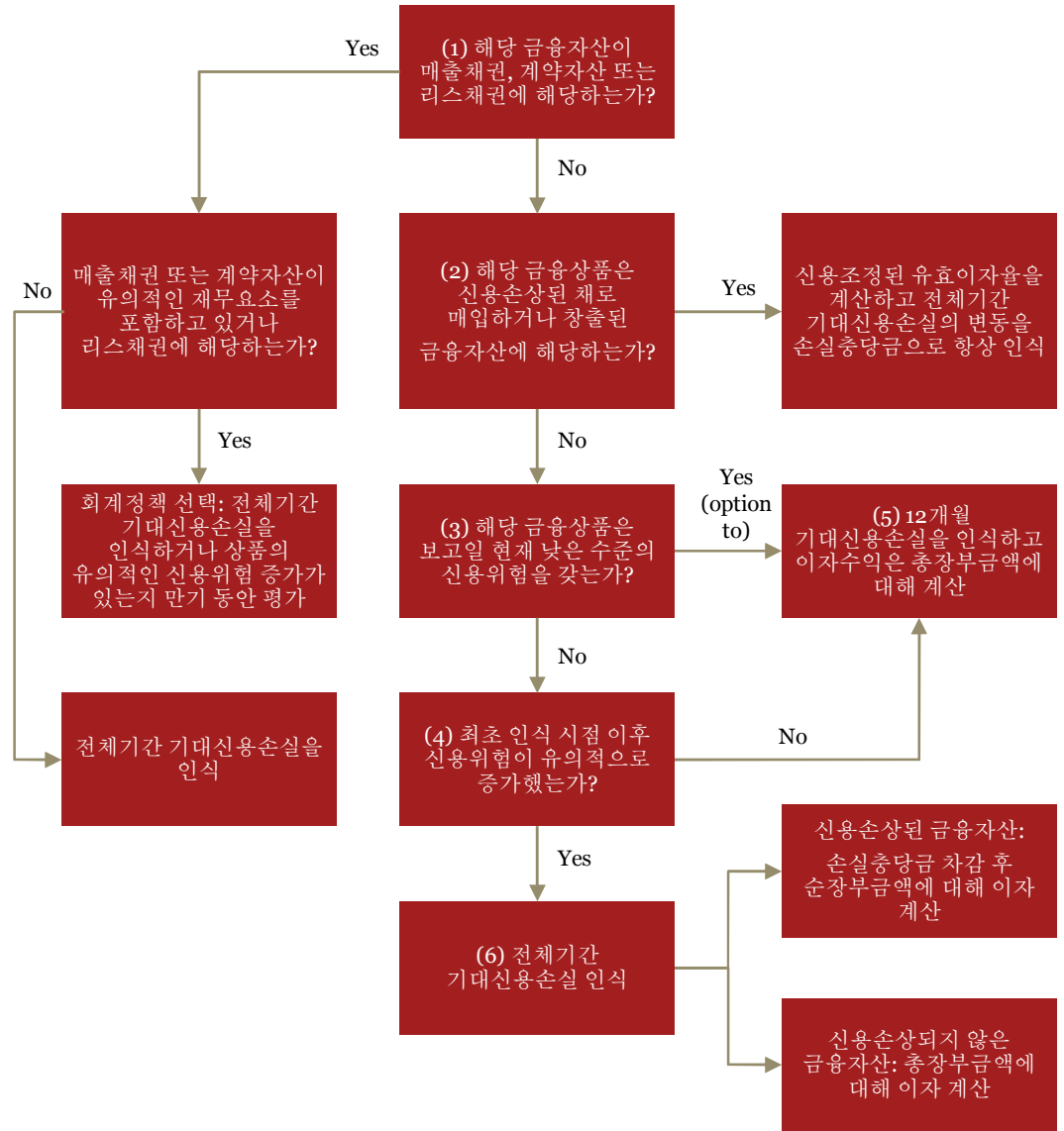
PwC observation

기준서에서는 IFRS 9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출약정과 IAS 37 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대출약정에 대한 구분을 제거하였다. 대출약정의 제공자는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대출약정에 대해서도 IFRS 9 의 손상 기준은 적용해야 한다.

Setting the scene: the 기대신용손실 model

다음 그림은 전반적인 기대신용손실 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¹ Entities applying IFRS 9 before adopting IFRS 15 should apply the impairment requirements to construction contracts under IAS 11 and IAS 18.



일반모형에 대한 적용범위 제외: 매출채권과 리스채권에 대한 간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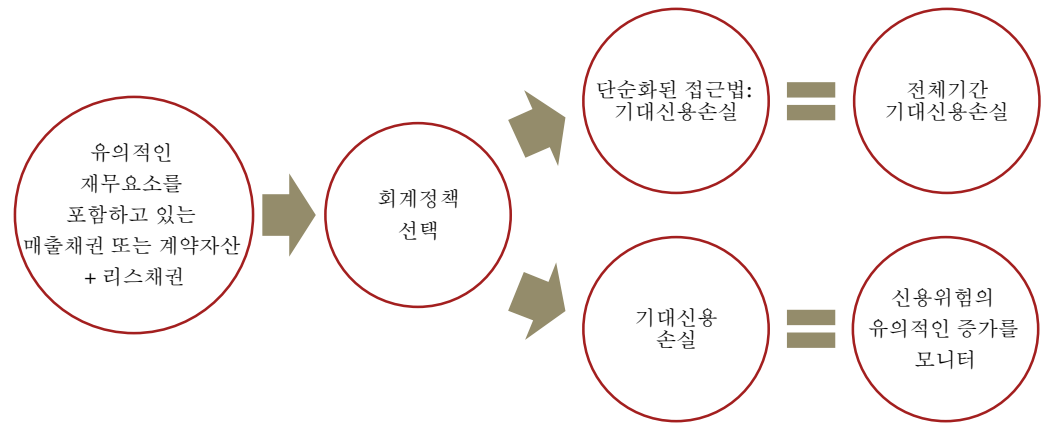
(1) 해당 금융자산이 매출채권, 계약자산 또는 리스채권에 해당하는가?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복잡한 신용위험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주로 보유하는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에 대한 적용상의 단순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단순화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의 계산과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대한 평가 요구사항을 면제하여 준다.

유의적인 재무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을 최초 인식시점과 만기기간 동안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액으로 측정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실무적 편의상 충당금 매트릭스를 적용할 수 있다. 별첨 1의 사례 1 참조.



IFRS 15에 따른 유의적인 재무요소를 포함하는 매출채권 또는 계약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해서 기업은 단순화된 접근법(손실충당금을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금액으로 측정) 또는 일반모형 중에서 회계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회계정책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나 기업은 이러한 회계정책 선택을 매출채권, 계약자산, 리스채권 각각에 대해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반모형에 대한 적용범위 예외: 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하거나 창출된 자산

(2) 해당 금융상품은 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하거나 창출된 금융자산에 해당하는가?

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하거나 창출된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모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 인식 시점에 손상의 증거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크게 할인된 금액으로 취득)에 해당 금융자산은 최초시점부터 또는 취득시점에 신용손상된 자산으로 간주된다.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최초 인식시점에 손상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전액으로 측정된다. 다만,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이 유효이자율 계산시의 예상현금흐름에 포함된다. 자산 만기동의 이자 인식을 위한 유효이자율은 신용 조정된 유효이자율이다. 따라서, 최초 인식시점에 손실충당금은 인식되지 않는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후속적인 변동은 방향과 관계없이 손익으로 즉시 인식된다.

PwC observation

신용이 손상된 채로 매입하거나 창출된 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현재 기업들이 IAS 39 문단 AG5를 적용하고 있는 방법과 대체로 일관된다.

낮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에 대한 실무상의 편의

(3) 해당 금융상품은 보고일 현재 낮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갖는가?

보고일 현재 낮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경영진은 일반모형에 대한 예외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손상을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적용상의 단순화를 적용하지 위해서는 해당 금융상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채무불이행 발생 위험이 낮음;
- 채무자는 단기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 그리고
- 채권자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또는 사업상의 부정적 여건에 따라 채무자의 의무이행능력이 감소할 여지는 있으나 반드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해당 상품의 신용위험은 담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담보로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경감한다는 사실만으로 낮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평가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또한 기업이 보유하는 다른 금융상품 대비 낮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갖는다는 사실 또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다른 금융상품 대비 낮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갖는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금융상품이 낮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없다.

PwC observation

이러한 실무상 편의를 적용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사항이다. 즉, 경영진은 낮은 수준의 신용위험 조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해서도 일반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실무상 편의는 특히 보험사와 같이 높은 신용도의 유가증권 포트폴리오를 대상으로 보유하는 금융기관의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실무상 편의는 낮은 수준의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자산에 대해 유의적인 신용위험의 증가가 있는지에 대한 평가절차를 면제하여 준다.

금융상품에 대한 외부 신용평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글로벌 신용평가에서 정의하는 ‘투자등급’의 정의와 일관되는 내부 신용평가를 사용할 수 있다.

수준의 신용위험 관련 간편화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인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 신용위험이 더 이상 낮은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경영진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 평가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증가하여 낮은 수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2 단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영진은 특정 상품에 대해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기 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일반모형에 대한 이해: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평가

(4) 최초 인식시점 이후의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가?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시점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할 때 경영진은 해당 금융상품의 기대신용손실 금액의 변동이 아닌 예상만기 기간동안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의 변동을 검토한다. 기업은 최초 인식시점 기준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과 보고일 현재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을 비교해야 한다. 경영진이 PD를 이용하여 이러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기간 PD(해당 상품의 잔여기간 동안)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실무상 편의를 위해 전체기간 PD를 사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면 12 개월 PD를 사용할 수 있다.

PwC observation

12 개월 PD를 사용하는 것이 전체기간 PD를 사용하는 것의 합리적인 추정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 예를 들어, 최초 12 개월 동안에는 채무자의 지급의무가 유의적이지 않은 일시상환조건의 대출금이나 신용 관련 요소의 변동이 12 개월 이후의 신용위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이 있다. 별첨의 사례 2에서는 12 개월 PD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활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담보가 있는 경우 기업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담보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에는 담보로부터 회수가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첨의 사례 3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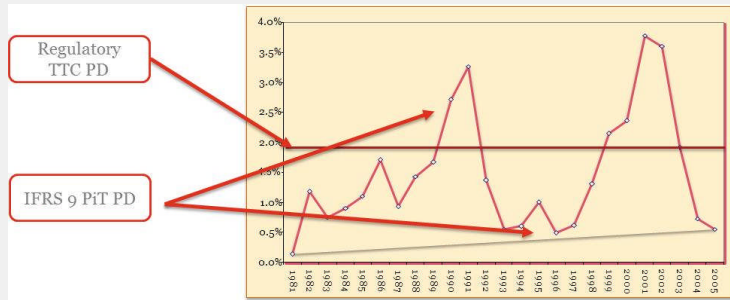
PwC observation

기준서에서는 전체기간 PD 를 사용한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경우 12 개월 PD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규제목적으로 사용되는 12 개월 PD 를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규제목적으로 사용되는 12 개월 PD 는 일반적으로 ‘through the cycle’ (‘TTC’)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cycle-neutral 한 경제상황에서의 채무불이행 발생확률) 에 근거하며 보수적 조정치를 포함할 수 있다. IFRS 9 목적으로 사용되는 PD 는 ‘point in time’ (‘PiT’) 확률 (현재 경제상황에서의 PD) 이며 보수적 조정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IFRS 9 PD 로의 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규제목적의 PD 는 계산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IFRS 9 하에서는 기업이 해당하는 경제 cycle 에 따라 추정 PD 가 변동할 것이다. 많은 규제목적의 모형에서는 PD 는 전체경기주기(‘through the cycle’) 기준으로 계산되어 경제상황의 변동에 덜 민감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목적의 PD 는 특정시점(PiT) PD 보다 장기적인 PD 의 추세변동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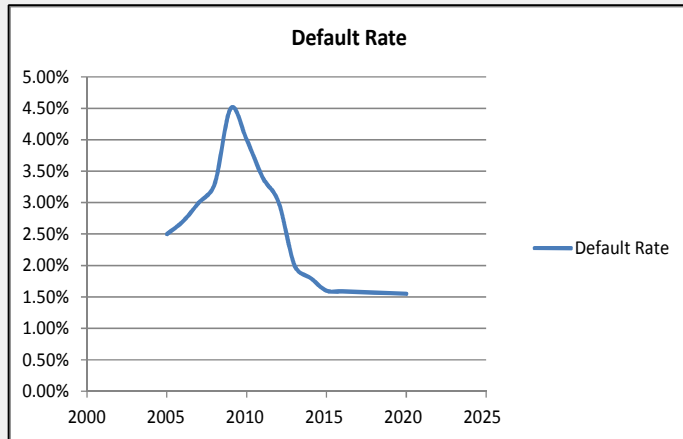
결과적으로 경기가 호황일 때에는 IFRS 9 PD (PiT)가 규제목적 PD (TTC) 보다 낮을 것이고, 경기가 불황일 때에는 조정치가 반대가 될 것이다:



기준서에서는 TTC PD 를 PiT PD 로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며 경영진의 판단이 요구된다.

PwC observation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과 보고일 간의 PD의 단순비교 또는 절대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특정 금융상품의 PD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은 특정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과 보고일 기준의 잔여만기를 고려하여 PD를 비교해야 한다. 이는 보고일 기준의 잔여만기(5년 만기 상품에 대해 3년이 경과하였다면 잔여만기 2년)에 대한 특정 금융자산의 PD는 최초 인식시점 기준의 해당 상품의 최종 2년에 대한 예상 PD와 비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실무적으로 부담되는 절차일 수 있다.



특정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지 평가할 때 경영진은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최선의 활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외부 시장 지표, 내부 요소 및 특정차주 관련 정보의 실제 및 예상 변동을 포함해야 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간단히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예는 다음과 같다:

- ✓ 특정 포트폴리오에 대해 최초 시점에 적용될 상품별 또는 지역별 최대 신용위험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보고일의 신용위험과 비교. 이는 최초 시점에 유사한 신용위험을 갖는 포트폴리오에만 적용 가능;
- ✓ 제시된 모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면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한 평가를 거래상대방 별로 수행; 그리고
- ✓ 해당 금융상품의 실제 또는 예상 외부신용등급의 유의적인 변동.

위의 예가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것은 아니며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평가를 위해 다른 방법들이 활용될 수 있다. 별첨의 사례 3에서는 PD에 근거하여 신용위험의 증가를 평가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는 특정 금융상품에 대한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나 채무불이행의 발생 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을 것이다. 기준서에서는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위해 과거와 미래전망(“forward-looking”) 정보를 모두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자산이 연체되기 전에 인식될 것이다. 기업은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미래전망 정보가 있다면 최초 인식시점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단지 연체정보만에 의존할 수 없고 그러한 미래전망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연체현황 보다 더 적절한 미래전망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이 30 일을 초과하여 연체되기 이전에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발생한다는 반증가능한 가정을 규정하고 있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없다는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연체 현황과 무관하게 이러한 가정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체가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관리상의 실수로 인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는 경영진이 접근가능한 과거 증거에 근거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와 30 일 연체된 자산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60 일 연체된 자산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는 금융자산이 신용손상되거나 채무불이행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은 지연되어서는 안되고 금융자산이 신용손상되거나 채무불이행 된 것으로 간주되기 전에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4) 최초 인식시점 이후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가?

신용위험의 증가에 대한 평가를 적용하는 수준

이 모형은 개별자산 수준 또는 포트폴리오 수준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상품 수준에서는 특정 요소나 지표는 확인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러한 요소나 지표는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자산의 신용위험이 증가했다는 이용가능한 정보가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존재하는 경우에는 개별 자산 수준에서만 그러한 평가를 수행하여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을 회피할 수 없다.

금융상품의 성격이나 특정 금융상품 집단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에 따라 경영진은 해당 금융상품이 연체되기 전에 개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식별하지 못할 수 있다. 개별 상품 기준으로는 고객이 계약조건을 위반하기 전에는 신용위험 정보의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거나 모니터하지 않는 가계대출과 같은 금융상품의 경우에 그러할 수 있다.

개별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의 변동이 해당 상품이 연체되기 전에 확인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상품 수준의 신용정보에만 근거한 손실충당금은 최초 인식시점 이후 신용위험의 변동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경영진이 개별 상품에 대한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정보를 과도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고 이용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의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종합적인 신용위험 정보를 고려하여 집합적으로 인식한다. 이때 개별 상품 수준에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시점에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것에 근접하는 결과를 위해 이러한 종합적 신용위험 정보는 연체 정보뿐 아니라 미래전망 정보와 거시경제 관련 정보와 함께 모든 관련 신용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를 적시에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진은 공통되는 신용위험특성에 따라 금융상품 집단을 구분할 수 있다. 기업은 다른 위험 특성을 갖는 금융상품을 한 집단으로 묶어 이러한 정보가 확인될 수 없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 공통되는 신용위험 특성의 예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a. 상품 종류;
- b. 신용위험등급;
- c. 담보 종류;
- d. 거래일자;
- e. 잔여만기;

- f. 산업;
- g. 채무자의 지리적 위치; 그리고
- h. 채무불이행 발생확률과 관련이 있다면 담보대출비율 (예를 들어 일부 국가의 비소구 조건부 대출금에 있어서의 담보대출비율(LTV)).

PwC observation

*IFRS 9*에서는 포트폴리오 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개별 상품을 지리적 위치, 우편번호, 거래시점의 잔여상환능력, 행동방식에 근거한 점수 등 채무자 고유의 특성에 따라 하위포트폴리오로 구분하는 상향식접근법을 기술하고 있다. 또는 경영진은 일반 정보에 근거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비율을 추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는 하향식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 별첨의 사례 4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만약 경영진이 개별 수준의 미래전망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아서 연체정보만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를 평가하는 경우(상향식접근법), 기준서에서는 경영진이 포트폴리오 수준에서의 미래전망 정보를 고려하여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향식접근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5) 12 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에 대해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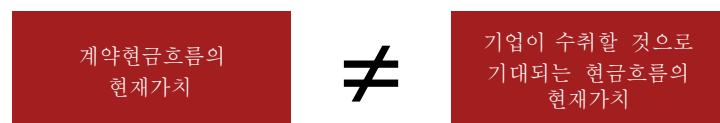
(6)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인식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에 대한 확률가중된 추정치이다. 신용손실은 계약에 따라 기업이 수취할 현금흐름과 기업이 수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의 차액을 최초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기대신용손실이 지급금액의금액과 시기를 고려하기 때문에 기업이 전액을 회수할 것으로 기대하더라도 계약상 지급일 보다 후에 회수될 예정이라면 신용손실이 발생한다.

다음의 사례에서는 금융자산과 대출약정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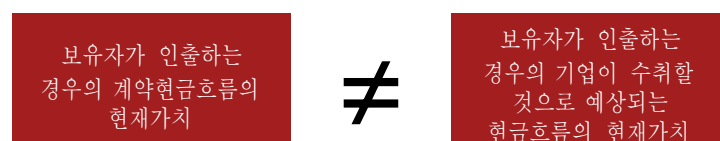
금융자산

기대신용손실은해당 금융상품의 잔여만기동안의 다음의 차이에 대한 확률가중된 추정치를 나타낸다:



미사용 대출약정

기대신용손실은해당 금융상품의 잔여만기동안의 다음의 차이에 대한 확률가중된 추정치를 나타낸다: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 시간가치(12개월 기대신용손실인지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인지와 무관하게)는 고려되어야 한다. 경영진은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수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을 최초 인식시점에 측정한 유효이자율 또는 이의 추정치로 할인해야 한다. 만약 특정 금융상품이 변동금리라면 기대신용손실은 현재의 유효이자율을 사용하여 할인해야 한다.

FVOCI 범주로 구분된 금융자산의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에는 신용손실충당금의 변동이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모형 하에서는 현재의 **IAS 39** 지침에 따를 때 보다 언제나 먼저 손익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이는 **FVOCI** 범주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별첨의 사례 5에서는 **FVOCI** 금융자산의 신용손실 추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출약정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의 추정은 해당 대출약정의 인출에 대한 기대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경영진은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에는 대출약정 중 보고일로부터 12개월 동안 인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하고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계산할 때에는 대출약정 중 대출약정의 예상만기 동안 인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보증계약에 대해서는 보증된 상품의 조건에 따라 해당 채무자가 지급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현금 부족액은 보유자의 신용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에서 보유자, 채무자 또는 제삼자로부터 수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만약 해당 자산 전액이 보증되어 있다면 해당 금융보증계약으로부터의 현금 부족액에 대한 추정치는 보증대상 자산으로부터의 현금부족액에 대한 추정치와 동일할 것이다.

최초 시점에 또는 취득시점에 신용손상된 금융자산이 아니면서 보고일에 신용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은 자산의 총장부금액과 미래예상현금흐름을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차액으로 측정해야 한다. 조정내역은 모두 손익에 손상차손익으로 인식한다.

PwC observation

대출약정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계산시 대상 기간의 추정을 위해서는 신용이 하락한 후의 경영진의 신용위험관리활동(미사용 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출약정 중 신용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인출시 금리를 조정하는 조건인 경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업은 대출약정에 대한 기대신용손실 추정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해야 할 수 있다.

기대신용손실 계산시의 대상기간

(5)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에 대해 계산

대출약정의 경우 기대신용손실 계산시의 최장 대상기간은 신용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최장 계약기간이다.

(6)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인식

리볼빙 신용한도약정과 같이 어떤 금융상품은 대여금과 미사용 약정 요소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환을 요구하고 미사용 약정을 취소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는 것 만으로 신용손실에 대한 노출이 계약기간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 그러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경영진은 기업이 신용위험에 노출된 기간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해야 하며 이때 그 기간이 최장 계약만기를 초과하더라도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위험관리활동으로 감소되지 않는다. 별첨의 사례 6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상품에 대해서는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대상기간을 판단할 때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한다:

- 유사한 상품에 대해 신용위험에 노출되었던 기간;
- 유사한 상품에 있어서 신용위험의 증가 후 관련 채무불이행 발생시까지의 기간; 그리고
- 해당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기업이 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신용위험관리활동(미사용 한도의 축소 또는 취소 등).

PwC observation

기준서에서는 이와 같은 기대신용손실의 인식에 대한 예외는 상황을 요구하거나 미사용약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신용손실에 대한 노출을 제한하지 않는 대여금과 미사용약정을 모두 포함하는 상품에 한하여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같이 이러한 종류의 상품에 대한 경험적만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경영진의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고려되어야 할 정보

기준서에서는 특정 금융상품의 잔여만기 동안의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다음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평가하여 산정한 편이가 없고 확률가중한 금액;
- 화폐의 시간가치; 그리고
-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정보, 미래 사건에 대한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예상, 보고일 현재의 경제상황.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경영진은 과거 사건, 현재 상태 그리고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미래 사건 및 경제환경에 대한 예상을 포함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추정에 필요한 판단의 정도는 구체적인 정보의 이용 가능 정도에 따라 다를 것이다. 별첨의 사례 7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합리적이고 근거있는 예상이 가능하지 않는 이후 기간에 대해서 경영진은 보고일의 현재 상태와 미래 사건 및 경제환경에 대한 예상 정보를 고려하여 경영진의 기대를 잘 반영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예상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체적 정보의 이용가능성은 감소하고 기대신용손실 추정을 위한 판단의 정도는 증가한다. 기대신용손실 추정은 먼 미래의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정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기간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이용가능한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기대치를 추정할 수 있다.

PwC observation

기준서에서는 이용가능한 정보에 근거한 추정의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여러가지의 다른 추정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영진은 잔여기간의 평균 기대신용손실을 적용할 수도 있고 이용가능한 최종 예상에 근거한 일정한 기대신용손실율을 일정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단지 예로 제시되는 것이며 다른 방법도 적용될 수 있다. 경영진은 특정 접근법을 선택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

(5) 12 개월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고 이자수익은 총장부금액에 대해 계산

(6)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인식

이는 상당한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이며 손상충당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다.

기준서에서는 기대신용손실에 대한 추정이 발생가능한 여러 결과에 대한 편중되지 않은 확률가중평균된 금액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준서에서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결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히, 경영진은 신용손실이 발생할 가능성과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이는 복잡한 분석이 아닐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대량의 구체적인 시물레이션이나 시나리오 필요 없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모델링으로 충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사한 위험 특성을 갖는 금융상품 집단의 평균 신용손실이 이러한 가중평균한 금액의 합리적인 추정치일 수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는 특정 결과에 있어서의 현금흐름의 금액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다수의 시나리오와 그러한 각 결과들에 대한 추정확률이 필요할 수 있다.

조건변경

기업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변경하고 이러한 변경이 제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자산의 총장부금액은 변경된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총장부금액은 미래 예상 변경현금흐름을 최초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이러한 조정은 조건변경에 따른 손익으로 당기손익에 인식되어야 한다.

조건변경된 자산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경영진은 보고일에 해당 자산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른 신용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최초 인식 시점의 최초 조건변경 전 계약현금흐름의 신용위험과 비교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교 결과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손실충당금은 12 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어야 한다. 별첨의 사례 8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을 설명하고 있다.

PwC observation

위의 내용은 조건변경의 결과로 자산이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만약 조건변경으로 해당 자산이 제거된다면 조건변경일자를 새로운 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으로 간주하고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는 이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담보

기대신용손실의 측정을 위해서 예상 현금흐름 부족액의 추정은 계약조건에 포함되어 있고 기업이 별도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담보 및 기타 신용보강으로부터의 현금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담보부 금융상품의 예상현금흐름 부족액의 추정은 담보의 실행에 따른 현금흐름의 예상 금액과 시기를 반영하고 담보를 취득하고 매각하는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는 담보의 실행가능성이 높은지와 무관(즉, 예상현금흐름의 추정은 담보실행의 가능성과 그러한 절차에 따른 현금흐름을 고려함)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계약만기 이후 담보로부터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은 모두 이러한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담보실행으로 취득된 담보는 관련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담보부금융상품과 별개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표시

이자수익은 포괄손익계산서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손상차손(손상차손의 환입 포함) 또한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기대신용손실은 재무상태표에 다음과 같이 인식되어야 한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리스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그리고
- 대출약정과 금융보증계약에 대한 충당금 (즉, 부채).

의무적으로 **FVOCI** 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은 재무상태표에 누적손상이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는 손실충당금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재무제표에 기대신용손실로 인해 인식된 금액과 신용위험의 악화와 회복의 효과를 식별하고 설명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공시가 요구된다. 아래는 요구되는 주요 공시사항이다.:

양 적 공시	질 적 공시
손실충당금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 간의 변동내역 및 변동의 주요 항목	기대신용손실추정에 사용된 투입변수, 가정, 추정방법론
총장부금액의 기초금액과 기말금액 간의 변동내역 및 변동의 주요 항목	신용위험의 유의적 증가 및 채무불이행을 판단하는데 사용된 투입변수, 가정, 추정방법론
신용위험 등급별 총장부금액	신용손상된 자산을 판단하는데 사용된 투입변수, 가정 및 방법론
상각, 환입 및 조건변경	상각정책, 조건변경 정책 및 담보

새로운 공시사항에서 요구하는 상세한 수준의 정보를 위해서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상당부분 변경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영진(특히 금융기관)에게 상당한 부담을 부과할 것이다.

기준과 적용지침에서는 요구되는 공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Transition

IFRS 9 는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한편, **IFRS 9** 완성 이전 버전의 기준서는 2015년 2월 1일 이후에는 조기적용할 수 없다. 경영진이 동 기준서를 해당 날짜 이후에 조기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류 및 측정, 위험회피 및 자기신용위험을 포함하는 기준서의 모든 내용을 적용해야 한다.

동 기준서는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의 재작성은 요구되지 않으나 사후에 인지된 사실을 이용하지 않고 재작성이 가능하다면 재작성할 수 있다. 비교표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도의 효과를 기초이익잉여금에서 조정한다.

IFRS 9 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 적용상의 단순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단순화는 이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날짜인

최초 적용일에 적용된다. 이 날짜는 동 기준서가 발행된 이후의 회계연도의 시작일이어야 한다.

경과시점의 적용상의 단순화

- 최초 적용일에 최초 인식시점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적용할 수 있다:
 - 최초 적용일에 낮은 신용위험을 갖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낮은신용위험 규정.
 - 최초 인식시점 이후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가 있는 것으로 식별된 경우에 한하여 30일 연체 관련 반증가능 규정.
- 최초 적용일에 최초 인식시점의 신용위험에 대한 평가가 비합리적인 비용과 노력을 요한다고 판단된다면 손실충당금은 해당 금융상품의 제거시점까지 각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은지 여부만을 근거로 평가되어야 한다.

경과규정 관련 공시

최초 적용일에 IAS 39에 따른 기말 손상충당금 또는 IAS 37에 따른 기말충당금과 IFRS 9에 따른 기초 손실충당금 사이의 변동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IAS 39와 IFRS 9의 해당 금융자산의 측정 범주별로 공시되어야 하며 측정범주의 변경에 따른 손실충당금 효과를 별도로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Implementantion Challenges

동 기준서의 적용은 특히 금융기관에 있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기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도의 신용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들은 요구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현재 신용 및 정보 시스템을 상당부분 변경해야 할 것이다.

12개월 및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 계산을 위해 새로운 모형의 개발도 필요할 것이다. 이는 복잡한 판단(채무불이행의 정의, 낮은신용위험의 정의, 리볼빙 대출약정 등에 대한 예상만기 등)을 요한다. 동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에 걸친 적용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Appendix – Illustrative examples

Example 1: Use of a provision matrix

IFRS 9 includes the following example of how to estimate ECL when the trade receivables exception applies:

A non-financial institution holds trade receivables that do not have a significant financing component. In order to determine the amount of ECL to be recognis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it has set up a provision matrix based on its historical observed default rates which is adjusted for forward-looking estimates and establishes that ECL should be calculated as:

- non-past due: 0.3% of carrying value
- 30 days past due: 1.6% of carrying value
- 31-60 days past due: 3.6% of carrying value
- 61-90 days past due: 6.6% of carrying value
- more than 90 days past due: 10.6% of carrying value

Analysis: The standard allows for a provision matrix to be used for recognising ECL on trade receivables. An entity needs to use its historical credit loss experience and more forward-looking information in order to establish the loss rates.

Example 2: Assessing increases in credit risk based on probability of default

The standard includes a number of examples of how to perform the assessment of 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We have included below one of the examples for illustration purposes.

Entity B acquires a portfolio of 1,000 five-year bullet repayment loans for CU1,000 each (that is, CU1,000,000 in total) with an average 12-month PD of 0.5 % for the portfolio. Entity B determines that, because the loans only have significant payment obligations beyond the next 12 months, changes in the 12-month PD would not be appropriate to determine 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At the reporting date, Entity B determines that there has not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and estimates that the portfolio has an average loss given default ('LGD') of 25%. Entity B determines that it is appropriate to measure the loss allowance on a collective basis. Entity B measures the loss allowance on a collective basis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CL.

Analysis: In this case, the entity assessed that using a 12-month PD to determine movements in credit risk was not a reasonable approximation of lifetime PD as the instrument had significant payments that were beyond the 12 month period.

Example 3: Assessing increases in credit risk based on probability of default

IFRS 9 includes a number of examples of how to perform the assessment of 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We have included below one of the examples for illustration purposes.

Company H owns real estate assets which are financed by a five-year loan from Bank Z with a PD of 0.5% over the next 12 months (the entity assessed that, for this particular instrument, changes in the 12-month ECL are considered a reasonable approximation of changes in lifetime ECL). The loan is secured with first-ranking security over the real estate assets.

Subsequent to initial recognition, the revenues and operating profits of Company H have decreased because of an economic recession. Furthermore, expected increases in regulation have the potential to further negatively affect revenue and operating profit. These negative effects on Company H's operations could be significant and ongoing.

As a result of these recent events and expected adverse economic conditions, Company H's free cash flow is expected to be reduced to the point that the coverage of scheduled loan payments could be tight. Bank Z estimates that a further deterioration in cash flows might result in Company H missing a contractual payment on the loan and becoming past due.

As a consequence of these facts, the PD has increased by 15% to 15.5%.

At the reporting date, the loan to Company H is not considered to have low credit risk. Bank Z therefore needs to assess 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irrespective of the value of the collateral that it holds. It notes that the loan is subject to considerable credit risk at the reporting date because even a slight deterioration in cash flows could result in Company H missing a contractual payment on the loan. As a result, Bank Z determines that the credit risk (that is, the risk of a default occurring)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initial recognition. Consequently, Bank Z recognises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on the loan to Company H.

Although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should be recognised, the amount of the expected credit losses will reflect the recovery expected from the collateral on the property value and might result in the expected credit loss being very small.

Analysis: In this case, the bank considered both PD and other information (such as macroeconomic and client-specific information),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occurred. An assessment based on LGD information only would not have identified that credit risk has increased significantly for the asset. Nevertheless, when calculating ECL the bank should factor in the expected recovery from collateral.

Example 4: Responsiveness to changes in credit risk (individual and portfolio assessments)

IFRS 9 includes a number of examples of how to perform the individual and portfolio analysis. We have included below one of the examples for illustration purposes.

Bank ABC provides mortgages to finance residential real estate in three different regions. The bank sets its acceptance criteria based on credit scores, and loans with a credit score above the 'acceptance level' are approved, as these borrowers are considered to be able to meet contractual payment obligations. When new mortgage loans are originated, Bank ABC uses the credit score to determine the risk of a default occurring as at initial recognition.

Individual assessment

In Region One, Bank ABC assesses each of its mortgage loans on a monthly basis by means of an automated behavioural scoring process that is based on current and historical past due statuses, indebtedness, loan-to-value measures ('LTV measures'), customer behaviour on other financial instruments with Bank ABC, the loan size and the time since the origination of the loan. Bank ABC updates LTV measures on a regular basis through an automated process that re-estimates property values using recent sales. Historical data indicate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 of residential property and default rates for mortgages, which is factored into the behavioural score. Bank ABC is able to identify significant increases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on individual customers before a mortgage becomes past due if there has been deterioration in the behavioural score.

When the increase in credit risk has been significant, a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lifetime ECL is recognised; otherwise, a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CL continues to be recognised. The loss allowance is measured using LTV measures to estimate the severity of the loss. If Bank ABC is unable to update behavioural scores, for example, to reflect the expected declines in property prices, it uses 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without undue cost or effort to undertake a portfolio assessment to determine the loans on which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and recognise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for those loans.

Portfolio assessment

In Regions Two and Three, Bank ABC does not have an automated scoring capability. Instead, for credit risk management purposes, Bank ABC tracks the risk of a default occurring by means of past-due statuses. It recognises a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lifetime ECL for all loans that have a past-due status of more than 30 days past due. Although Bank ABC uses past-due status information as the only borrower-specific information, it also considers other reasonable and supportable forward-looking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without undue cost or effort to assess whether lifetime ECL should be recognised on loans that are not more than 30 days past due. This is necessary in order to meet the objective in paragraph 5.5.4 of IFRS 9 of recognising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for all significant increases in credit risk.

Region Two includes a mining community that is largely dependent on the export of coal and related products. Bank ABC becomes aware of a significant decline in coal exports and anticipates the closure of several coal mines. Because of the expected increase in the unemployment rate, the risk of a default occurring on mortgage loans to borrowers in these areas who rely on the coal mines is determined to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even if those customers are not past due at the reporting date. Bank ABC segments its mortgage portfolio, by the industry within which customers are employed, to identify customers that rely on coal mining as the dominant source of employment (that is, 'bottom up' approach). For such groups of mortgages, Bank ABC recognises a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lifetime ECL while it continues to recognise a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CL for all other mortgages in Region Two. Newly originated loans to borrowers who rely on the coal mines in this community would, however, have a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CL, as they would not have experien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In Region Three, Bank ABC anticipates the risk of a default occurring and thus an increase in credit risk, as a result of an expected increase in interest rates during the expected life of the mortgages. Historically,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has been a lead indicator of future defaults on mortgages in Region Three, especially when customers do not have a fixed interest-rate mortgage. Bank ABC determines that the variable interest-rate portfolio of mortgages in Region Three is homogenous and that, unlike for Region Two, it is not possible to identify particular sub-portfolios on the basis of shared risk

characteristics that represent customers who are expected to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credit risk. However, as a result of the homogenous nature of the mortgages in Region Three, Bank ABC determines that an assessment can be made of a proportion of the overall portfolio tha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that is, a 'top down' approach can be used). Based on historical information, Bank ABC estimates that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of 200 basis points will cause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on 20% of the variable interest-rate portfolio. Therefore, as a result of the anticipated increase in interest rates, Bank ABC determines that the credit risk on 20% of mortgages in Region Thre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initial recognition. Accordingly, Bank ABC recognises lifetime ECL on 20% of the variable rate mortgage portfolio and a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CL for the remainder of the portfolio.

Analysis: In this case, where the individual assessment only takes into account past due information, the bank is required to complete an assessment of changes in credit risk at a portfolio level using more forward looking information. To complete this assessment, the bank has used both the 'bottom up' and the 'top down' approach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for each portfolio. Both approaches are acceptable according to the standard.

In addition, an entity should subdivide a portfolio if it identifies that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that applies only to a portion of a given portfolio. This might indicate that the risk characteristics have become different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portfolio.

Example 5: Estimating expected credit losses – FVOCI

IFRS 9 includes a number of examples of how to estimate ECL. We have included below one of the examples for illustration purposes.

An entity purchases a debt instrument with a fair value of CU1,000 on 15 December 20X0 and measures the debt instrument at fair value through other comprehensive income. The instrument has an interest rate of 5% over the contractual term of 10 years, and has a 5% effective interest rate. At initial recognition, the entity determines that the asset is not a purchased or originated credit-impaired asset.

	Debit	Credit
Financial asset – FVOCI	CU 1,000	
Cash		CU1,000

On 31 December 20X0 (the reporting date), the fair value of the debt instrument has decreased to CU950 as a result of changes in market interest rates. The entity determines that there has not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and that ECL should be measured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CL, which amounts to CU30. For simplicity, journal entries for the receipt of interest revenue are not provided.

	Debit	Credit
Impairment expense (P&L)	CU30	
Other comprehensive income	CU20	
Financial asset – FVOCI		CU50

The cumulative loss in other comprehensive income at the reporting date was CU20. That amount consists of the total fair value change of CU50 (that is, CU1,000 – CU950)

offset by the change in the accumulated impairment amount representing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that was recognised (CU30).

On 1 January 20X1, the entity decides to sell the debt instrument for CU950, which is its fair value at that date.

	Debit	Credit
Cash	CU950	
Financial asset – FVOCI		CU950
Loss on sale (P&L)	CU20	
Other comprehensive income		CU20

Analysis: When calculating ECL on financial assets classified in the FVOCI category, movements in the ECL provision will impact P&L. Under the model, impairment charges in P&L will always occur earlier as compared to current IAS 39 guidance, and this is no different for financial assets classified in the FVOCI category.

Example 6: Revolving credit facilities

IFRS 9 includes an example of how to determine ECL on revolving credit facilities. We have included below one of the examples for illustration purposes.

Bank A provides co-branded credit cards to customers in conjunction with a local department store. The credit cards have a one-day notice period after which Bank A has the contractual right to cancel the credit card (both the drawn and undrawn components). However, Bank A does not enforce its contractual right to cancel the credit cards in the normal day-to-day management of the instruments and only cancels facilities when it becomes aware of an increase in credit risk and starts to monitor customers on an individual basis. Bank A therefore does not consider the contractual right to cancel the credit cards to limit its exposure to credit losses to the contractual notice period. For credit risk management purposes, Bank A considers that there is only one set of contractual cash flows from customers to assess and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drawn and undrawn balances at the reporting date. The portfolio is therefore managed and expected credit losses are measured on a facility level.

At the reporting date, the outstanding balance on the credit card portfolio is CU60,000 and the available undrawn facility is CU40,000. Bank A determines the expected life of the portfolio by estimating the period over which it expects to be exposed to credit risk on the facilities at the reporting date, taking into account:

- a. The period over which it was exposed to credit risk on a similar portfolio of credit cards;
- b. The length of time for related defaults to occur on similar financial instruments; and
- c. Past events that led to credit risk management actions because of an increase in credit risk on similar financial instruments, such as the reduction or removal of undrawn limits.

Bank A determines that the expected life of the credit card portfolio is 30 months. At the reporting date, Bank A assesses the change in the credit risk on the portfolio since initial recognition and determines that the credit risk on a portion of the credit card facilities representing 25% of the portfolio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initial recognition. The outstanding balance on these credit facilities for which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should be recognised is CU20,000 and the available undrawn facility is CU10,000.

When measuring the expected credit, Bank A considers its expectations about future draw-downs over the expected life of the portfolio (that is, 30 months) and estimates what it expects the outstanding balance (that is, exposure at default) on the portfolio would be if customers were to default. By using its credit risk models, Bank A determines that the exposure at default on the credit card facilities for which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should be recognised is CU25,000 (that is, the drawn balance of CU20,000 plus further draw-downs of CU5,000 from the available undrawn commitment). The exposure at default of the credit card facilities for which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are recognised is CU45,000 (that is, the outstanding balance of CU40,000 and an additional draw-down of CU5,000 from the undrawn commitment over the next 12 months).

The exposure at default and expected life determined by Bank A are used to measure the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and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on its credit card portfolio. Bank A measures expected credit losses on a facility level and therefore cannot separately identify the expected credit losses on the undrawn commitment component from those on the loan component. It recognises expected credit losses for the undrawn commitment together with the loss allowance for the loan component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o the extent that the combined expected credit losses exceed the gross carrying amount of the financial asset, the expected credit losses should be presented as a provision.

Analysis: When estimating ECL on revolving credit facilities, expected life can be greater than contractual life.

Example 7: Estimating expected credit losses

IFRS 9 includes a number of examples of how to estimate ECL. We have included below one of the examples for illustration purposes.

Entity A originates a single 10-year amortising loan for CU1 million.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expectations for instruments with similar credit risk (using 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without undue cost or effort), the credit risk of the borrower, and the economic outlook for the next 12 months, Entity A estimates that the loan at initial recognition has a PD of 0.5% over the next 12 months. Entity A also determines that changes in the 12-month PD are a reasonable approximation of the changes in the lifetime PD for determining whether there has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At the reporting date (which is before payment on the loan is due), there has been no change in the 12-month PD, and Entity A determines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Entity A determines that 25% of the gross carrying amount will be lost if the loan defaults (that is, the LGD is 25%). Entity A measures the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CL using the 12-month PD of 0.5%. Implicit in that calculation is the 99.5% probability that there is no default. At the reporting date, the loss allowance for the 12-month ECL is CU1,250 ($0.5\% \times 25\% \times \text{CU}1,000,000$).

Entity B acquires a portfolio of 1,000 five-year bullet loans for CU1,000 each (that is, CU1 million in total) with an average 12-month PD of 0.5% for the portfolio. Entity B determines that because the loans only have significant payment obligations beyond the next 12 months,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onsider changes in the 12-month PD when determining whether there have been significant increases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At the reporting date, Entity B therefore uses changes in the lifetime PD to determine whether the credit risk of the portfolio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initial recognition.

Entity B determines that there has not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and estimates that the portfolio has an average LGD of 25%. Entity B determines that it is appropriate to measure the loss allowance on a collective basis in accordance with IFRS 9. The 12-month PD remains at 0.5% at the reporting date. Entity B therefore measures the loss allowance on a collective basis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based on the average 12-month PD of 0.5%. Implicit in the

calculation is the 99.5% probability that there is no default. At the reporting date, the loss allowance for the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is CU1,250 ($0.5\% \times 25\% \times \text{CU1,000,000}$).

Analysis: This example illustrates that the information used and the process for calculating the ECL allowance should vary depending on the nature and circumstances of each instrument.

Example 8: Modified financial instruments

IFRS 9 includes an example of how to estimate ECL for modified financial assets. We have included below one of the examples for illustration purposes.

Bank A originates a five-year loan that requires the repayment of the outstanding contractual amount in full at maturity. Its contractual par amount is CU1,000 with an interest rate of 5% payable annually. The effective interest rate is 5%. At the end of the first reporting period (Period 1), Bank A recognises a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because there has not been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A loss allowance balance of CU20 is recognised.

In the subsequent reporting period (Period 2), Bank A determines that the credit risk on the loa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since initial recognition. As a result of this increase, Bank A recognises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on the loan. The loss allowance balance is CU30.

At the end of the third reporting period (Period 3), following significant financial difficulty of the borrower, Bank A modifies the contractual cash flows on the loan. It extends the contractual term of the loan by one year so that the remaining term at the date of the modification is three years. The modification does not result in the derecognition of the loan by Bank A.

As a result of that modification, Bank A recalculates the gross carrying amount of the financial asset as the present value of the modified contractual cash flows discounted at the loan's original effective interest rate of 5%. The difference between this recalculated gross carrying amount and the gross carrying amount before the modification is recognised as a modification gain or loss. Bank A recognises the modification loss (calculated as CU300) against the gross carrying amount of the loan, reducing it to CU700, and a modification loss of CU300 in profit or loss.

Bank A also remeasures the loss allowance, taking into account the modified contractual cash flows and evaluates whether the loss allowance for the loan should continue to be measured at an amount equal to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Bank A compares the current credit risk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odified cash flows) to the credit risk (on the original unmodified cash flows) at initial recognition. Bank A determines that the loan is not credit-impaired at the reporting date but that credit risk has still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credit risk at initial recognition and continues to measure the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The loss allowance balance for lifetime expected credit losses is CU100 at the reporting date.

Period	Beginning gross carrying amount A	Impairment (loss)/gain B	Modification (Loss)/gain	Interest revenue D gross: $A \times 5\%$	Cash flows E	Ending gross carrying amount F $F=A+C+D-E$	Loss allowance G	Ending amortised cost H $H=F-G$
1	CU1,000	(CU20)		CU50	CU50	CU1,000	CU20	CU980
2	CU1,000	(CU10)		CU50	CU50	CU1,000	CU30	CU970
3	CU1,000	(CU70)	(CU300)	CU50	CU50	CU700	CU100	CU600

At each subsequent reporting date, Bank A evaluates whether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by comparing the loan's credit risk at initial recognition (based on

the original, unmodified cash flows) with the credit risk at the reporting date (based on the modified cash flows).

Two reporting periods after the loan modification (Period 5), the borrower has outperformed its business plan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expectations at the modification date. In addition, the outlook for the business is more positive than previously envisaged. An assessment of all reasonable and supportable information that is available without undue cost or effort indicates that the overall credit risk on the loan has decreased and that the risk of a default occurring over the expected life of the loan has decreased, so Bank A adjusts the borrower's internal credit rating at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Given the positive overall development, Bank A re-assesses the situation and concludes that the credit risk of the loan has decreased and there is no longer a significant increase in credit risk since initial recognition. As a result, Bank A once again measures the loss allowance at an amount equal to 12-month expected credit losses.

Analysis: As the modification did not result in derecognition of the financial asset, Bank A should continue to assess increases in credit risk by comparing credit risk at the reporting date with credit risk at initial recognition. As the model is symmetrical, the bank should consider both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s in credit risk.